



배경사





제29장 바울의 성령 이해(2)

Jesus

II. 육과 영 대조법(로마서8:5~8,12~13 고린도전서1:18~2:16)

- ▶ 서론
- ▶ 로마서 8:5~8,12~13의 주석
 - 1) 육신과 성령의 대조, 2) 선천적으로 육신 안에 존재하는 죄, 3) 성령에 의한 육신의 극복
- ▶ 고린도에 있었던 육에 속한 사람-신령한 사람 대조
 - 1)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고린도전서 1:18~2:5
 - 2) 고전2:6~16에 나타난 육에 속한 사람-신령한 사람 대조
- ▶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자로서의 성령
- ▶ 결론:성령과 타고난 죄를 지닌 육신





1. 서론

- ▶ 육과 영의 대조는 성령의 사역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 ▶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과 관련이 있는가?
- ▶ 구약과 요한복음의 예수의 말씀과 상응하는가?
- ▶ 고전 1:18~2:16의 대조법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 ▶ 행위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이점에 대한 바울의 논제는 육과 영의 대조법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2. 로마서 8:5~8,12~14의 주석 ●

1) 육신과 성령의 대조 - 1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5~8)





2. 로마서 8:5~8,12~14의 주석 ●

1) 육신과 성령의 대조 - 2

육	영
육신을 따르는 자 (롬8:5)	영을 따르는 자 (롬8:5)
육신의 일을 생각함 (롬8:5)	영의 일을 생각함 (롬8:5)
사망 (롬8:6)	생명과 평안 (롬 8:6)
하나님과 원수 (롬8:7)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롬 8:8)





2. 로마서 8:5~8,12~14의 주석 ●

1) 육신과 성령의 대조 - 3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14)





2. 로마서 8:5~8,12~14의 주석 ●

1) 육신과 성령의 대조 - 4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38)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쭉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 47:1~2)





2. 로마서 8:5~8,12~14의 주석 ●

1) 육신과 성령의 대조 - 5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 31:3)





2. 로마서 8:5~8,12~14의 주석 ●●

2) 선천적으로 육신 안에 존재하는 죄 - 1

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7)





2. 로마서 8:5~8,12~14의 주석 ●●

2) 선천적으로 육신 안에 존재하는 죄 - 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12~13)

- ▶ 성령 안에 있는 새 삶은 육신 안에 있는 죄에 종노릇 하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 ▶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의 자유와 도덕적 방종주의는 다른 것임.





3. 고린도에 있었던 육에 속한 사람-신령한 사람 대조

1)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고린도전서1:18~2:5) - 1

- ▶ 고린도전서 1:18-2:5에서 제시하는 육과 영의 구별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3. 고린도에 있었던 육에 속한 사람-신령한 사람 대조

1)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고린도전서1:18~2:5) - 2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내세우는 사람과 택한 받은 사람	지혜 있는자, 선비, 변사(고 전 1:20)	세상의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멸시 받는 것들(고 전1:27~18)
구하는 것과 주시는 것	유대인-표적 헬라인-지혜 (고전1:22)	십자가의 도(고전1:18)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 도(고전1:22)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고 받으려는 방법	자기 지혜 (고전 1:21)	전도의 미련한 것 (고전1:21)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평가	유대인-꺼리는 것 헬라인-미련한 것 (고전1:23)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고전1:24)
결과	멸망하는 자 (고전1:18)	구원을 얻는 자 (고전 1:18)





3. 고린도에 있었던 육에 속한 사람-신령한 사람 대조

1)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고린도전서1:18~2:5) - 3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23~24)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31)





3. 고린도에 있었던 육에 속한 사람-신령한 사람 대조



2) 고전2:6~16에 나타난 육에 속한 사람-신령한 사람 대조 - 1

- ▶ 고전 2:6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
- ▶ 고전 1:23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3. 고린도에 있었던 육에 속한 사람-신령한 사람 대조



2) 고전2:6~16에 나타난 육에 속한 사람-신령한 사람 대조 - 2

육에 속한 자 (고전 2:14)	신령한 자 (고전 2:15)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하나도 알지 못함 (고전 2:8)	하나님께서서 우리에게 온혜로 주신 지혜를 암 (고전 2:12)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 (고전 2:13)	성령의 가르치신 것 (고전 2:13)
미련하게 보임, 깨닫지도 못함 (고전 2:14)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함 (고전 2:13)





3. 고린도에 있었던 육에 속한 사람-신령한 사람 대조



2) 고전2:6~16에 나타난 육에 속한 사람-신령한 사람 대조 -3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사야 64:4)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17)





4.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자로서의 성령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육을 이기기 위해 성령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강조는 자신의 어떤 체험에 의한 것인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로마서 2:10)





4.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자로서의 성령



바울이 성령적 계시를 강조하는 이유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계시의 최초의 그의 경험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근거

- ▶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가 더 이상 꺼려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메섹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해서이다.
- ▶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묘사한 것은 그가 뵈게 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킨다.





4.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자로서의 성령



- ▶ 바울은 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면서 그 비밀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들을 잘 제시한다.
 - ▶ 김세윤박사는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계시에 기초한 것임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 세 가지 특징이란 다음과 같다.
- ▶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이제 계시 되었다.
 - ▶ 계시의 수종자들이 처음은 바울이요, 다음은 그의 동료들, 그리고 그들의 선포로 그 비밀의 계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 ▶ 그 계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체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이다.



5. 결론:성령과 타고난 죄를 지닌 육신

바울은 육신과 성령을 대조하는데, 이 대조는 구약의 육신과 성령의 대조와 상통한다. 육신은 자연인, 곧 타고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자기의 일을 따라 가는 삶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된 것으로 죽음을 가져온다. 반면에,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이는 우리가 인롭다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인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후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롭다하심을 입는다.





5. 결론:성령과 육신의 대조



육과 영의 대조는 죽음과 생명의 대조와 일치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알리시고자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첫 계시, 곧 다메섹 도상에서의 계시의 빛 가운데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파멸과 어리석음의 표지인 십자가가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승리와 지혜, 또 영광의 표식을 깨달은 것도 바로 다메섹 도상의 첫 계시로 말미암는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2:1, 7 로마서 11:25 이하에 언급된 비밀은 단지 인간의 사색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계시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